

이용자 급감... 애물단지 전략한 '공중전화 부스'

관리 소홀·방치... 범죄 악용도 전기통신법 따라 철거 어려워 "새로운 역할 수행 노력할 것"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가 도심 내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자가 급감해 일부 부스는 각종 쓰레기와 적치물 등이 쌓인 채로 방치된 실정이다. 관리업체는 공중전화 부스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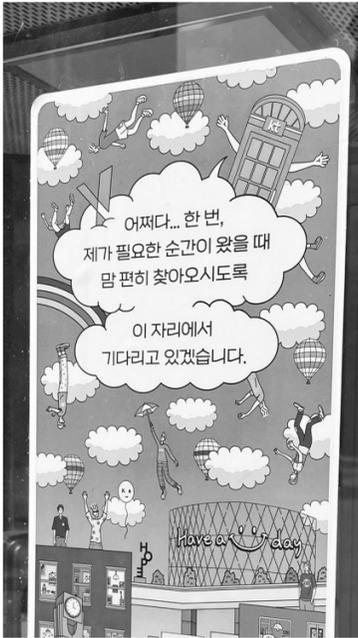
7일 KT링크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각각 900여대와 1200여대의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돼 있다. 부스의 개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1년 당시 광주에 4800여대, 전남에 8100여대가 설치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광주·전남 모두 80% 이상 급감한 수치다.

10여년 전부터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등에 따라 공중전화의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공중전화 부스도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략해 방치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찾은 광주 동구 광산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스 주변으로 청소도 구함 등 각종 적치물이 쌓여있고 부스 위에는 나무판자와 빗자루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중전화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7일 오전 찾은 서구 치평동의 공중전화 부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부스 주위는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종이상자와 쓰레기봉투 등 각종 폐기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부스 내부 역시 오랫동안



7일 오전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주위로 종이박스와 쓰레기봉투 등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다.

안 인적이 끊긴 듯 거미줄이 쳐져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이 드물어진 탓에 부스를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에서는 공중전화로 더불어민중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공중전화 부스에 마약을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던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공중전화의 실효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 방치되고 있지만, 공중전화를 완전히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어 국민 통신권 보장 등의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보편적 의무로 규정된다.

일부 시민들은 일부 공중전화 부스가 창고 및 쓰레기 투기, 흡연 장소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도심 슬럼화를 부추킨다고 지적했다.

송유한(23)씨는 "휴대전화 없던 초·중·고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어 공중전화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집 근처 공중전화도 일부 상인들이 폐기물을 내놓거나 내부에 적치물 등을 쌓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식당가 인근 공

중전화 부스에서는 일부 시민이 내부에 들어가 흡연하거나 담배꽂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공중전화 부스 주변 환경정비 등 철저한 관리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할부서를 중심으로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비롯한 관할구역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공중전화 부스가 각종 적치물 등에 뒤덮여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전화 관리업체 KT 링크스 측은 공중전화 부스를 변화시켜 시민 편의 제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T링크스 관계자는 "시민들의 긴급통신권 보장을 위해 거리 등을 고려해서 공

중전화 개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장마철 광주·전남지역에 빈번했던 낙뢰로 인해 일부 기기 결함이 생겨 순차적으로 수리하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전화 부스에 ATM·전기차 충전·전기이륜차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공기질 측정·휴대전화 배터리 대여·환전·CPR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중전화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장소적 장점을 활용해 시민 편의 제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중전화 부스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금호타이어 공장 잇따른 사망사고에 가해자·책임자 입건

경찰, 안전관리 여부 조사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공장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호타이어

공장 직원인 50대 지게차 운전기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장 내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지게차에서 쏟아진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가 B씨를 덮쳤으며,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공장 내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한다.

전남경찰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공장장, 현장 안전 관리자, 설비 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5시32분께 곡성군 입면 소재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C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안전 관리 감독 책임 범위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따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